



충남농기원, 2002년 사슴사육반 교육 실시

- 120여 양록농가 참여, 뜨거운 교육 열기 -

지난 3월14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02년 사슴사육반 교육이 실시됐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록인 120여명이 참석해 양록교육에 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정보과 안석진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충청도가 사슴사육 두수 및 농가가 가장 많다”고 전제한 후 “지난해부터 실시된 사슴사육반 전문 교육을 해마다 꾸준히 실시, 사슴산물이 충청도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교육 강사로는 본회 배소식부회장, 축산기술연구소 이장희박사, 대전대학교부속한방병원 설인찬 교수, 건국대학교 문상호교수가 초빙돼 각각 ▲ 외산 양록산물 대응방안 및 국내 양록산업 전망(※ 최초 강의 주제는 ‘국내 사슴사육 전망과 유통’이었으나 실제 강의 내용이 맞게 제목 변경), ▲ 인공수정을 통한 번식기술 향상기술 ▲ 녹용의 성분 및 이용 ▲ 자급조사료원료 이용 및 사육 사양관리를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본회 배소식부회장은 1시간여의 강의를 통해 국산녹용이 외산녹용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록산물의 품질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녹용 소비 촉진을 통해 현재 녹용과 중탕 정도로 한정된 양록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장희 박사는 외국의 인공수정 연구 및 사례, 국내 인공수정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설인찬 교수는 녹용의 효능 및 이용방법, 양질의 녹용 구별법 등을, 문상호 교수는 자급조사료원의 효율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 양록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강의 내용 본문 참조)

충남 농업기술센터는 각 강사의 강의 후에는 참여 농가로부터 궁금한 점에 관한 질의를 받는 시간을 마련,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양록인은 “양록인이라면 양록에 관련돼 누구든지 많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도시에서 군에서 양록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양록**

